

#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EWSLETTER

2004년 9월 30일 발행 (월간 · 비매출)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 · 편집인 이정환(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인쇄인 · 김재극/(인쇄 · 주)문원사)

## “농업의 다양한 정보 창고, KREI 홈페이지”

### 농업 · 임업관측, 북한농업, 세계농업 클릭, 정보 쏟아져

랭키닷컴(www.rankie.com)이 최근 검색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연구원이 국내 경제연구소 가운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색순위 연구원 상위에 랭크

우리 연구원은 홈페이지(www.krei.re.kr) 농업정보방을 통해 농업관측정보, 임산물관측정보, 북한농업정보, 세계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농업관측정보는 크게 연도별 농업전망, 분기별 농업·농촌경제동향, 월별 품목관측월보 자료이다. 농업관측은 채소, 과일, 과채, 축산의 26개 품목(52개 작형)에 대해 매월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을 예측해 발표하고 있다. 채소는 매월 1일, 과일, 과채의 경우는 매월 10일, 축산의 경우 육계는 매월 25일, 한육우, 돼지, 젖소, 신란계는 분기별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의 농업정보 농업관측정보 또는 우측의 바로가기 배너 중 농업관측정보를 클릭하거나,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aglook.krei.re.kr)를 방문해 좌측 메뉴 중 농업관측정보를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구원 및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산물 일일거래동향, 기상정보 등 다양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관측, 농사짓는데 큰 도움 줘

농업관측정보는 농민에게 농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재배작목 선택, 파종 및 출하시기 등에 대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농업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정부의 수급대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밤 관측을 시작해 올해 표고버섯으로 확대한 임업관측은 산림정책연구실이 표본농가와 지역자문위원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배, 생산, 가격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임산물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업관측결과는 언론과 월보 등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전달하고, 특히 연구원 홈페이지 ‘임산물관측정보’ 사이트를 통해 관측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물관측정보’ 사이트에는 관측월보를 비롯한 연차전망, 생산, 가격, 수출입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게시해 임산농가들의 주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 북한·세계 농업 정보 체계적 제공

북한농업팀은 농업정보방에 ‘북한농업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북한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북한의 주요동향분석, 북한신문보도방향, 남북교류협력, 국제교류협력, 북한기상, 북한농업통계, KREI 북한농업동향 등이다.

주요동향분석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농업 등 다양한 문제를 조사·분석해 북한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북한신문보도방향에서는 노동신문



· 홈페이지(www.krei.re.kr) 메인 화면

과 민주조선에 게재되는 농업관련 기사들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정보와 북한기상 정보, 북한 농업통계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KREI 북한농업동향에서는 북한농업팀에서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KREI 북한농업동향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세계 농업이 수시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에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설치, 세계 주요 국가의 농업 및 관련산업 개황을 비롯해 주요 정책, 세계 곡물수급 현황, 농산물무역 동향, 그리고 WTO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하고 매월 세계농업뉴스(월간)도 발행해 최근까지 800여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정보를 확장하는 동시에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도 개편해 수요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계 석학들 한국농업 어려움 공감”

## 서울대와 공동으로 9월 24일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대와 공동으로 9월 24일 호암회관 개최한 국제세미나

백칼라 교수는 “시장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는 시장개방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상세히 연구하고 총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호암회관 컨벤션홀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WTO/DDA 협상과 농업정책개혁’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환 원장은 기존 연설을 통해 “WTO는 한국농업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 주고 한국농업도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면 농산물시장의 자유화란 고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WTO에서 후발 개도국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원만한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김호탁 교수 사회로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김한호, 이태호 교수는 ‘한국의 농가소득 지지와 농업정책 개혁’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날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규모 농업투융자 사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농가소득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직접지불 프로그램과 저농지가의 장기 종합 농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부 배종하 국장은 정부도 직불제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적정 금액 선정문제, 품목간 수혜 불균형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미국의 알렉스 백칼라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가 ‘신성한 상품, 전통적 농업, 식량안보, 그리고 자유무역화: 한국 등 신흥부유국의 어려운 선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분한 논의를 거쳐 한국농업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개도국 지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중국의 왕시명 남경농업대학 교수가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발전: 기회, 도전,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고, 강원대학교 김경량 교수가 토론했다.

네 번째 주제발표는 OECD 스테판 탕어만 식품농수산국장이 ‘OECD 국가에서의 WTO와 농업정책개혁: 성과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스테판 탕어만 국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OECD 국가내 농업지지는 줄었지만 합의된 양적 감축이 너무 느슨했다”고 평가하며 “DDA 협상에서도 농업은 어려운 주제이며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가 적은

생산과 분리된 직물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인천대학교 이명현 교수는 OECD가 계산하는 PSE(생산자 보조 추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국의 농업보호를 보다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정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에게 한국농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한국농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 ‘유가농업 미치는 영향’ 등 발간

우리 연구원은 최근 농정속보 2권과 영문보고서 1권을 발간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기업농 육성과 관련하여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연구해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속보를 발간했다.

특히 최근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선 연구위원, 김배성 전문연구원, 정학균 연구원이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품목별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을 받는 시설재배채소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정민국 부연구위원은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 연구진과 함께 영문으로 ‘The Korea and Australian Reef Markets and Prospects for Trade’란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중국에서 개최

지난해 우리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가 참여하여 발족한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이 오는 10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첫날은 오전에 동북아경제정상회담

개막식에 참석한 뒤 포럼 개최식을 갖고 ‘동북아 식량안보정책과 품질보증과 식품안전’이란 주제로 한중일 전문가들이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갖는다.

포럼 이튿날엔 동북아경제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한중일 공동연구 주제인 ‘동북아 무역모형과 데이터베이스’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농장과 농기업체 시찰을 가질 계획이다.

#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과학기술대전 개최

## 5백여개 농림과학기술 및 제품 전시, 8천여명 참관



지난 9월 16일 aT센터에서 열린 농림과학기술대전 개막 테이프 커팅

우리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9월 16일과 17일 aT센터에서 농림과학 연구개발 분위기 확산 및 참여 유도, 첨단농업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위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2004 농림과학기술대전'을 열어 8천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대전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북대 박경규 교수, 전남농업기술원 최경주 박사가 근정포장을, 경상대학교 박정규 교수 외 2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23명에게 농업과학기술상을 수상해 농림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켰다.

2004 농업과학기술대전 우수기술전시회'는 9월 16일과 17일 aT센터 제2 전시장에서 작물과학기술관, 동물과학기술관, 원예과학기술관, 산림과학기술관, 식품과학기술관으로 나뉘어 전시했다. 이날 전시물은 그 동안 농림기술관리센터가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 결과물 중 이전대상 및 우수기술을 선정하고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 및 일반 홍보를 통해 전시신청을 한 업체나 개인의 기술 및 제품을 기술성·사업성 평가과정을 거쳐 신뢰성 있는 기술 500여 가지를 선정해 전시했다.

또한 9월 16일에는 3분과로 나뉘어 우수기술발표회도 가졌다.

### 질 높은 축산관측 위해 현장체험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축산관측팀은 더욱 질 높은 축산관측사업 수행

을 위해 한옥우, 젖소, 양돈, 산란계, 육계로 나뉘어 각각 농장 현장체험을 했다.

한옥우 관측을 하고 있는 송우진 연구원은 경기 양평 개군한우 농장에서 2박 3일 동안 농장 체험과 우시장, 도축장을 방문했다.

산란계와 육계 관측을 맡고 있는 이형우 연구원은 경기도 평택의 산란종계 부화장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육계 농장에서 각각 1박 2일씩 현장체험

을 했다.

또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젖소농장과 이천 양돈장에서 각각 1박 2일씩 농장체험을 한 김현중 연구원은 "고되고 힘든 농장 일이었지만 현재 다루고 있는 축종을 중심으로 농장체험을 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과일, 과채, 축산 관측팀은 수시로 주산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더욱 생생한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체험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KREI 세미나

우리 연구원은 9월 23일 중회의실에서 OECD의 스테판 탕어만 식품농수산물국장을 초청, '농업의 사회적 기여 다원적 기능'이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했다.

## FTA 연구단 설치·운영

### FTA 연구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수행

우리 연구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국의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협상 대응전략을 수립해 향후 FTA 협상과 관련 정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원내에 FTA 연구단을 설치했다.

이번 FTA 연구단 출범으로 우리 연구원은 FTA 체결 협상대상국에 대해 농업 부문에 대한 파급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협상 시 관세 철폐 예외품목의 우선순위와 예견되는 쟁점 파악, 국내농업·농업인에 대한 보상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해 협상 전략 수립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또한 FTA 추진 관련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FTA 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은 칠레,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품목별 대책 마련 등 FTA 관련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연구원은 이번 FTA 연구단 발족

으로 FTA 협상 예상국인 아세안(ASEAN), 인도, 캐나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멕시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 부문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FTA 협상 관련 연구를 수행해 향후 FTA 협상 전략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연구원 FTA 연구단은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을 단장으로, 국제협상 전문가인 어명근 연구위원, 권오복 부연구위원, 허주영 연구원, 모형전문가인 김배성 전문연구위원, 주요 관련 품목 전문가인 박동규 연구위원, 송주호 연구위원, 박현태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가를 총원,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연구단은 향후 FTA 협상 연구에 국내외 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FTA 관련 해외 전문가, 협상대상국의 학자들을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 쌀 협상,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서진교 부연구위원

9월 들어 쌀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쌀 협상은 관세화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시장개방 조건을 놓고 구체적인 수치가 오고 가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쌀 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다. 자체 농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투표까지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일년 동안 애써 기운 버를 갈아엎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쌀 협상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 농민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우선 농민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정치적 성향을 띤 농민들의 과시적인 데모가 못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지난 30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심리적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쌀농사가 수지맞고, 농촌이 살기에 좋다면 왜 오늘날 농업인구는 자꾸만 고령화되고 농촌에서 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지겠는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비농업간 근본적인 생산성 격차에 따라 농업부문이 점차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히 농업인구가 고령화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 특히 쌀은 농업전체의 생산액중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농가의 3/4이 쌀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쌀로부터 얻고 있으며, 국민의 영양공급 측면에서도 1일 1인당 영양섭취의 30% 이상이 쌀에서 얻고 있다. 과연 세계 어디에 이러한 품목이 또 있을까?

이러한 쌀이 추가적으로 개방되고 향후 쌀값이 폭락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농민들이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나마 수확기 쌀값을 일정 부분 지지해준 수매가를 4% 인하한다니, 게다가 추곡수

매제 마저 폐지한다고 하니 왜 정부에 반감을 갖지 않았는가? 물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도 가졌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설명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소득보전직불제도, 조속히 공표해야

쌀 농가들의 불만의 원인은 소득에 있다. 추가개방으로 쌀값이 폭락하여 소득이 대폭 감소한다면 그나마 어렵게 버텨온 영세농은 물론 쌀을 전문적으로 짓는 전업농들의 소득도 대폭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준비중인 소득보전직불제도를 조속히 확립하여 공표하는 것이 제일이다. 물론 지금과 같이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속에서 쌀 협상이 어찌되든 현 수준의 소득은 보장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을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러는 그런 와중에도 데모를 선동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으려는 움직임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득보전대책 발표는 상당수 농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소모적인 쌀 개방논쟁을 불식시키고 쌀 농가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득보전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쌀 협상은 정부에 일임해야

소득이 보전된다면 사실 현재와 같이 관세화나 유예나 하는 논쟁은 무의미하게 된다.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개방의 폭이 아니라 소득이며, 쌀 협상의 결과에 관계없이 현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굳이 거리로 나가 쌀 개방 반대 데모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

서 농민은 쌀 협상에 관해서만큼은 정부를 믿고 협상결과가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도록 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협상력도 배가된다. 관세화유예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실리를 찾아 오히려 상대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농민은 현 수준의 소득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고, 정부는 최대한 실리를 찾아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니 그야말로 정부와 농민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되는 셈이다.

### 소비자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그러나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의 보전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정부와 농민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왜 또 다시 그 보다 훨씬 많은 국민의 세금이 농업부문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현재의 소비자들은 농민들이 국회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농업부문에 들어간다고 선택 동의해주는 소비자가 아니다. 왜 그 많은 세금이 농업부문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농민의 소득을 도시민이 보장해야 하는지,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를 소비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농민은 힘을 합쳐 농업의 중요성을 도시민에게 강조하는 한편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높은 농산물을 제 때에 공급해주겠다는 농민들의 약속은 당연히 포함된다. 풍요로운 가을 들녘에 땀흘려 추수하는 평화로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떠올려본다. <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 이후 동향과 전망

임 소 영 연구원

작년 칸쿤에서의 결렬 이후 잠정 중단상태에 있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지난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로 인해 재개되었다. 이는 세계 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지역주의가 대세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합의안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

기본골격 합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상 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나 협상 그룹별로 반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WTO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부는 기본골격이 합의되기까지 기울인 자국 대표들의 노력에 치하를 보내며 매우 만족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보조를 이행 첫해에 20% 감축해야 한다는 점과 민감품목 등 수입국들에 많은 신축성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EU는 민감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일정 수준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2003년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을 통해 수출보조나 국내 농정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미 많은 양보를 하였고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만큼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를 감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의 대표격이자 이번 기본골격 합의안이 나오는데 중대한 역할을 맡았던 브라질은 이번 합의안을 선진국들에 대한 개도국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선진국의 수출보조 완전 철폐, 이행기간 첫해에 국내보조 20% 감축, 민감품목을 포함한 특별품목 선정 가능성, 특별긴급수입 제한방식(SSM)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된 합의안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및 스위스 등의 국가가 포함된 G10은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으나 민감품목의 개수, 관세감축방식 등 구체적인 원칙에 있어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것인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세상한의 설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의 모델리티 협상에서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케언즈 그룹은 기본골격이 앞으로의 협상을 가속화시킬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칸쿤에서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그룹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협상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국가간 그룹간의 이해가 골고루 반영되었다는 분위기이다.

## 모델리티 협상, 분야별 쟁점 부각

지금까지 앞으로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합의된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세부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보조에 있어서는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시 적용할 구간의 개수와 상하한선이 쟁점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블루박스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CCP(Counter Cyclical Payment)를 살리려는 미국의 시도에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심한 반발이 있어 향후 협상에서 블루박스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근 협상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 등 수출개도국 그룹은 미국과 EU의 보조정책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농민과는 경쟁할 수 있지

만 미국 정부와는 경쟁할 수 없다'는 한 개도국 인사의 말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일반품목의 관세감축방식 즉, 구간별 감축시의 구간의 개수와 상하한선, 구간별 감축공식 등에서 수출국들의 거센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차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은 민감품목의 개수와 관세감축방식, 관세할당물량(TRQ) 약속과의 연계 등이다. 민감품목은 FTI와 일본, 스위스를 포함한 G10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등 수출국들은 민감품목에 대해 신축성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대조치를 통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과 TRQ 약속을 하는 개도국을 감안할 때 선진국들이 어느 수준까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더욱 힘들고 어려운 모델리티 협상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의 차가 좁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본골격을 모호하게 만들어내었다면 분야별로 구체적인 숫자가 오고가는 모델리티 협상에서는 덮어두었던 각국의 이해관계가 표면상으로 나타나 더욱더 어렵고 치열한 협상이 될 것이다.

미국과 EU로 압축되는 선진국과 브라질, 인도를 대표로 하는 수출개도국간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수입개도국인 우리나라는 협상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3>

# 일본 · 멕시코간 FTA 체결과 주요 내용

일본과 멕시코는 지난 9월 1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양국의 FTA는 2005년 4월부터 발효하게 된다. 이번 FTA 체결은 북미의 FTA 허브국인 멕시코에게는 33개 국채이며,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이다. 양국간 FTA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관심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오렌지 생과, 오렌지 과즙 등 농산물 5대 품목에 대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돼지고기 수출 확대에 관심을 가진 멕시코에 대해 일본은 차액관세제도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과제이었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오렌지 과즙에 대해서는 '관세반감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 돼지고기 관세반감쿼터 설정

일본은 돼지고기에 대해 차액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저가일수록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수입가격이 1kg당 393엔까지는 관세포함 가격이 409.9엔이 되도록 하고, 393엔을 초과하면 4.3%의 관세를 부과하며, 48.9엔 이하의 품목은 361엔의 종량세를 부과한다.

이번 협정에서 일본은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되, 단지 393엔 초과품목에 대한 세율을 2.2%로 반감하고, 이에 대한 쿼터(관세반감쿼터)를 설정하는 등 적절한 수입제한장치를 남겨놓았다.

그리고 관세반감쿼터는 발효 5년째 8만톤으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쿼터는 차액관세가 부과되는 가격수준을 상회해도 2.2%의 관세를 부과하는 물량이며, 더구나 이 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농산물 5대 품목 합의내용

품 목	합 의 내 용
돼지고기	○ 1kg 393엔을 초과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반감(2.2%)하는 관세반감 쿼터 설정 ○ 관세반감 쿼터 : 초년도 3.8만톤~5년째 8만톤 ○ 차액관세제도는 유지
소고기	○ 초기 2년간 무관세 : 10톤 ○ 저율관세 쿼터 : 3년째 3,000톤~5년째 6,000톤
닭고기	○ 초기 1년간 무관세 : 10톤 ○ 저율관세 쿼터 : 2년째 2,500톤~5년째 8,500톤
오렌지 과즙	○ 관세반감 쿼터 설정 ○ 관세반감 쿼터 : 초년도 4,000톤~5년째 6,500톤
오렌지 생과	○ 초기 2년간 무관세 : 10톤 ○ 저율관세 쿼터 : 3년째 2,000톤~5년째 4,000톤

주 : (1) 닭고기, 소고기, 오렌지(생과)의 협정발효 2~3년째 이후의 저율관세 쿼터의 관세율은 발효 1~2년째에 재협의  
(2) 모든 품목의 5년째 이후의 쿼터 및 관세율은 재협의

한편, 오렌지 과즙도 돼지고기와 같은 관세반감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발효 초년도 4,000톤에서 5년째에 6,500톤으로 멕시코측에 대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관세율은 협정 발효후 재협의

또 멕시코측이 관심이 높은 소고기, 닭고기, 오렌지 생과는 멕시코의 대일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발효후 1~2년간 판매촉진용으로 10톤의 무관세 쿼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3년째부터 5년째까지 소고기는 4,000톤에서 6,000톤으로, 닭고기는 2,500톤에서 8,500톤으로, 오렌지 생과는 2,000톤에서 4,000톤으로 저율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저율관세 쿼터에 대한 세율은 협정 발효후에 재협약하기로 합의하였다. 세율에 대한 협의개시 시기는 닭고기는 1년째, 소고기와 오렌지 생과는 2년째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저율관세의 세율을 확정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일본이 FTA 협상을 진행중인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이다. 멕시코와의 닭고기 관세율이 사전에 결정되면 닭고기 대일 수출에 관심이 높은 태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 농정개혁 동시 강구

일본은 FTA에 의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그리고 구조개혁 노력 등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카메이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농업에 비교적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협상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오렌지 등에 대해 저율관세 쿼터를 설정한 것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저가 품목의 대량 수입을 방지하였고,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반감쿼터를 설정함으로써 대량 수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남겨놓았다. 이것은 향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경험으로 일본은 현재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협상 결과를 관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과는 2005년, 나머지 국가와는 2004년중에 FTA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신속한 FTA 체결을 위해 적불제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농정개혁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김태근 부연구위원>

# 쌀협상 난항 속 ‘개방’ - ‘유예’ 논쟁 확산

## 4차 쌀협상 중국, 미국 등 무리한 요구 고수

미국, 중국, 태국 등과 4차 협상까지 마친 쌀 재협상에서 이들 주요국들은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관세율 인하, 검역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관세화 유예’ 전략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시에는 협상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 등 실리협상을 촉구해 온 언론들은 정부가 각국의 국내 쌀 시장 진출 요구를 수용하기에 벅차다고 판단하고, 일본식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농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전국 100여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쌀개방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9월 들어 쌀개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계에서 종교단체, 노동계, 지방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관세화 개방과 관세화 유예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쌀협상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들도 특집 등의 형식으로 농업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으나 관세화 유예보다 실익우선의 협상을 촉구하는 논조가 많이 취급되었다.

한편, 이명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방승 토론에서 ‘관세화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쌀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 정부가 협상전략을 바꿔야 할 시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농민 91% 40살 이상,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6%

8월 31일 농림부가 발간한 <농림업 주요통계>를 보면, 2003년 말 현재 농가 수는 195만 가구로, 10년 전인 1993년 259만 가구에서 24.8%가 감소했으며, 농민 가운데 40살 이상의 비중이 78.6%에서 91.0%로 크게 늘어났고, 특히 65살 이상 비율은 93년 15.9%에서 33.1%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 소득 비율은 93년 95.5% 수준이었으나 98년 80.1%, 2003년 76.2%로 해마다 줄어 도농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반면 가구당 소득 대비 농가부채 비율은 93년 40.3%에서 98년 83.0%, 2003년 99.0%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 20여개국과 동시다발 FTA 추진

정부는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국가 등 2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는 올해 안에 FTA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끌고있는 한미 FTA 논의도 우리 정부측 인사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FTA 추진이 활발한 가운데 한 칠레 FTA에 대한 효과 논란도 이어져 <동아일보> 등이 산자부의 집계를 인용해 한 칠레 FTA체결 5개월만에 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밀진 장사’를 했다고 평가한 반면, <매일경제>는 한 칠레 FTA 효과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

## 곡물 수입단가 34% 급등...쌀개방 협상 변수 전망

9월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옥수수, 밀 등 곡물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반면 곡물 수입단가는 34%나 상승해 전체 수입금액은 30%(24억 37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edaily> 등 언론들은 국제 곡물시세가 상승한 것은 올해 세계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소비량 증가와 재고량 감소, 중국의 곡물 수입국 전환에 따른 우려 때문으로, 특히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WTO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물량 부담도 커지고 있어 향후 쌀시장 개방협상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 과수 폐원신청 급증...과수산업기반 붕괴 우려

한 칠레 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포도와 복숭아, 참다래(키위)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수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과수원 폐원 신청을 받기로 하자 농민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루 정부의 예상보다 약 5배나 많은 폐원 신청이 쏟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과수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경쟁적으로 과수원 폐원 신청을 한 것은 농정에 대한 불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 고령화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으며 특히 이들은 한꺼번에 많은 과수원이 폐업할 경우 국내 과수재배 기반이 붕괴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 제3기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91명 위촉

우리 연구원이 지난 8월 19일부터 13일간 공개 모집한 '제3기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 모집'에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응모했다. 연구원은 이들 응모자중 직업과 활동계획 등을 고려해 86명을 선정하고, 여기에 제2기 우수모니터 5명을 포함, 최종 91명을 9월 9일자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3기 모니터 요원은 농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사, 웹마스터, 회사원, 가정주부 등 비농업계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연구원의 홈페이지가 다양한 계층의 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해 연구성과물의 확산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알리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원이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9월 구축한 '홈페이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2년간 모니터와 답변이 총 5백30여건에 달할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을 비롯해 3차에 걸친 로딩속도 조사를 거쳐, 인터넷 전용회선을 증설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연구원 직원 가족 24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였다.

### ■ 연구진 동정

△김명환 선임연구위원과 박동규 연구위원은 중국 호남성에서 9월 23일부터 열린 아시아 쌀산업 워크숍에 참석코자 출국했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9월 9일 전북대에서 개최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9월 21일은 농수축산신문이 주최한 지역 클러스터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9월 18일 농어

촌사회연구소에서 개최한 한·일 FTA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박동규 연구위원은 9월 21일 연기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연찬회에서 쌀농업 발전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어명근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9월 13일 열린 FTA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박시현 연구위원은 9월 2일 담양군청에서 담양군자치농정센터가 '지방분권 시대의 자치농정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최경환 연구위원은 9월 15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재해지원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9월 23일 세계농정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호

주의 축산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용선 연구위원은 9월 17일 부여 토마토시험장에서 열린 과채류 수급 및 유통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김태곤 부연구위원은 9월 20일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세계곡물수급 동향과 식량 위기'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9월 2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산물 공동계산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 연구원 인사

△(전보) 조경출 연구원(농정연구센터), 이원진 연구원(농업관측정보센터)

△(복직) 박헌태 연구위원(농산업경제연구센터)

## KREI 사료실 설치위해 자료수집



지난 6월 18일 가진 연우회 총회에서 전시한 연구원 사료물

우리 연구원은 30여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료전시실 설치를 계획하고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1978년에 개원한 우리 연구원은 농정연구의 산실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 많은 연구를 수행해 농정을 지원하여 왔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연구원의 활동을 반영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해 연구원의 사료집 발간은 물론 연구원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 사료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있는 대상품목은 연구결과물, 연구과정물, 사무기기, 컴퓨터, 육필원고, 각종 기념품 등이다.

이미 연구원 사료전시실 설치와 관련

하여 관심 있는 전현직 직원들이 사료를 기증하였으며 기증한 직원과 물품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을 퇴직한 유철호 박사는 영문타자기와 손계산기를, 이두순 박사는 수동식 손계산기를, 오호성 박사는 농촌경제 1

호를 비롯 연구보고서와 브러시 등을 김정부 박사는 펀치카드와 출력물 등을 기증하였고, 정명채 선임연구위원은 독문타자기를,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영문타자기를, 이성복 부연구위원이 손계산기 등을 기증해 보관하고 있다.

연구원 사료실 설치와 관련한 문의나 물품 기증을 원하면 이성복(02-3299-4224), 조태희(02-3299-4226), 김동원(02-3299-4227)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물품을 기증하면 전시물에 기증자 명기는 물론 반영구적으로 전시·보전할 계획이다.

향후 사료실 설치는 연구원 CI 제작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연구원 뉴스나 홈페이지(www.krei.re.kr)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